



마운드 UP·방망이 UP 호랑이 ‘V11’ 탄탄대로

전태현·최용규·이종환 스타탄생 예고... 김상현·안치홍 부상 고민거리로

■ KIA 日전훈 결산

호랑이들의 겨울은 어땠을까?
 3일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KIA 타이거즈가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댔다. 뜨거운 겨울을 보낸 선수들은 6일 시작되는 시범경기를 통해 주전을 향한 마지막 시험무대에 오른다. 현재까지는 KIA의 2연패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두터운 선발진을 앞세운 KIA 마운드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지난 시즌 초반 6선발 체제로 마운드 안정화를 꾀했던 조범현 감독은 이번에도 6선발을 계획하고 있다. 두 용병 로페즈·로드리게스와 토종 에이스 윤석민·양현종은 일찌감치 선발 자리를 예약해놨다.
 캠프 MVP로 꼽힌 사이드 전태현과 ‘노련미’의 이대진·서재응, 좌완 박경태가 남은 선발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조

범현 감독은 시범경기 전반 많은 투수를 투입해 마운드 최종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타선은 더 강해졌다. 우승의 짜릿한 경험이 전지훈련 분위기를 진지하고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타자들은 한층 높아진 목표표를 세우고 타력 업그레이드에 주력했다.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은 기술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다. 연습경기에서도 단연 나지완의 활약이 돋보였다. 10경기 타율이 0.517에 달하는 나지완은 2개의 홈런 포도 기록하고 있다. ‘빅쇼터’ 최희섭도 매서운 스윙으로 홈런왕에 도전장을 냈다.
 이용규·이현곤도 타격 가다듬기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이용규는 방망이 무게를 늘리고 타격폼을 손보면서 장타력이 더해졌다. 이현곤도 타격왕에 등극했던 2007년의 재현을 준비하고 있다.
 ‘캠프 스타’도 대거 탄생했다. 원조 ‘돌직구’ 이동현은 길었던 공백을 딛

고 캠프 최고의 모범생으로 꼽혔다. 전지훈련 막판 좋은 피칭으로 볼넷을 책임질 재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3년차 전태현은 꾸준한 상승세로 선발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타선에서는 최용규와 이종환이 스타탄생을 버르고 있다. 지난해 내·외야를 오가며 분전했던 멀티플레이어 최용규는 타격감이 절정에 올랐다. 전지훈련 11경기에서 가장 많은 11타점을 만들었다. 연습생 신화를 준비하는 이종환에 대한 코칭스태프의 믿음도 확고하다.
 문제는 역시 부상이다. 좌완 볼펜진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인 심동섭이 허리통증으로 중도 귀국하면서 볼펜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김상현·안치홍의 부상도 걱정거리다. 각각 무릎과 손목이 좋지 않은 두 선수는 이번 캠프에서 완벽하게 훈련을 소화해내지 못했다. 조범현 감독은 시간을 두고 두 선수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4일 오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훈련을 갖고 시범경기 준비에 들어갔다.

일반석 성인 7000원, 학생·군경 4000원

KIA 홈경기 입장요금 확정

2010시즌 무등경기장 야구장 입장요금이 확정됐다.
 일반석 입장요금은 성인 7천원, 학생(중고생) 및 군경 4천원이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천5백원이다. 초등학교생은 2천원, 7회말 종료 이후 입장하는 심야 요

금은 1천원이다.

KIA 성인과회원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한 홈페이지 평생회원의 입장요금은 5천원이다. 2010시즌 프로야구 8개 구단 어린이회원과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경로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1급 장애인 은 일반석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지정석은 성인 1만2천, 중고생 9천원,

어린이 6천원이다.

중앙 타자석 상단에 위치한 오피러스 가족석 2인석은 6만원, 4인석은 12만원으로 음료 및 다과, 빙스 식사권이 제공된다. 중앙 타자석 하단의 K7석은 1인 2만5천원이다. 1루 타자석과 외야 타자석의 요금은 각각 2만원과 1만5천원이다.
 예매처는 인터넷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전화 (1588-7890), 웨비마트 편의점, GS25 편의점, 구단 홈페이지 등이며 카드 할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허정무호 16강 해법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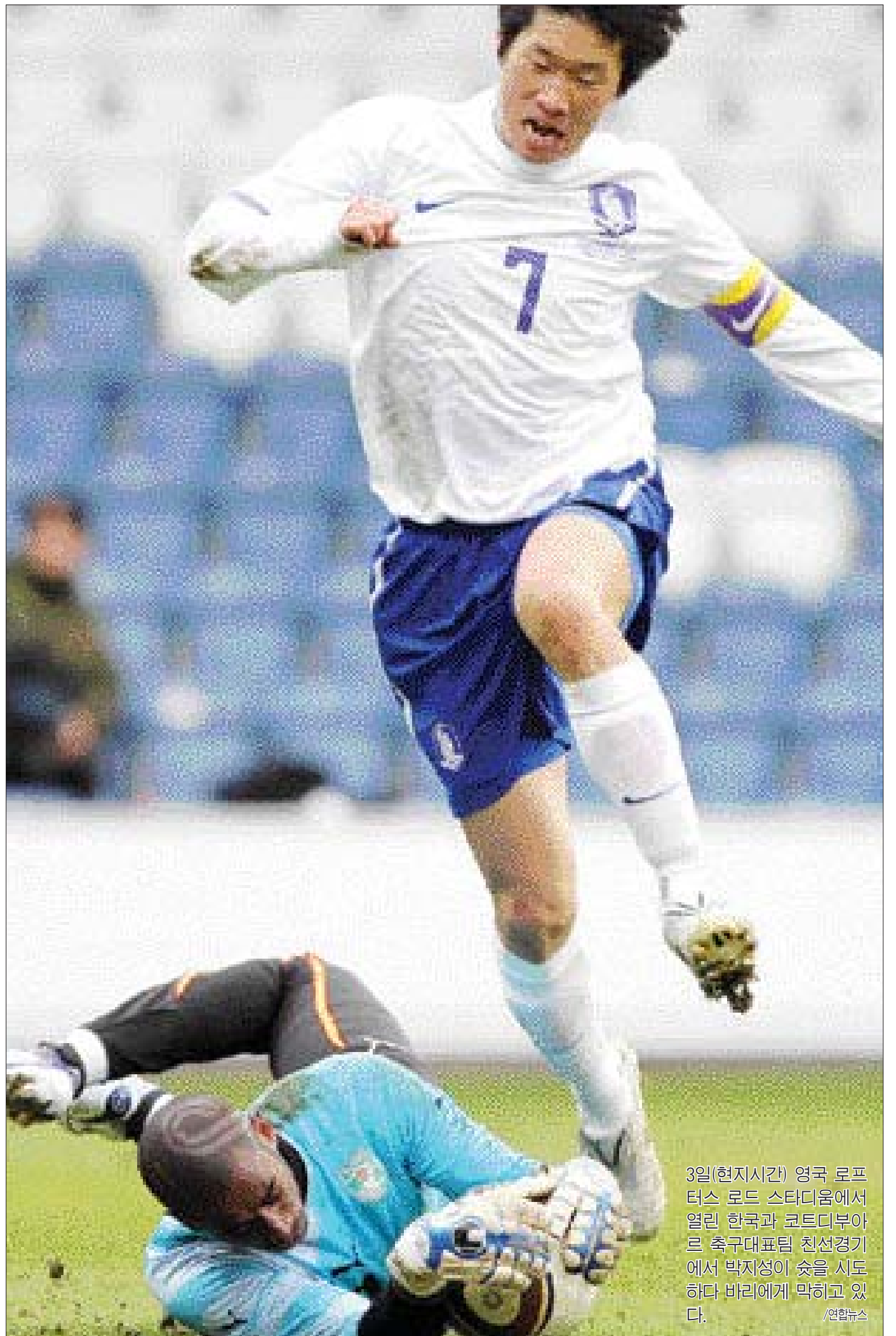
뛰고 또 뛰고 상대 압박... 코트디부아르 2대0 완파

이동국·이근호 가시권...엔트리 23·베스트 11 윤곽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 엔트리 23명과 베스트 11의 윤곽이 잡혔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로프트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친선경기에서 전반 4분에 터진 이동국의 선제골과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박태환의 헤딩골로 2-0 승리를 낳았다.
 이로써 한국은 월드컵 최종 엔트리(23명)를 확정하기 전에 치른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승리를 챙겨 나이지리아와 월드컵 본선 맞대결을 앞두고 자신감을 충전했다. 허정무 감독은 이날 해외파를 풀가동하며 월드컵 최종 엔트리 구상을 드러냈다.

◇이동국·이근호는 가시권...안정환·이승렬·설기현 경쟁=박주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다. 허벅지를 다친 박주영이 부상에 복귀한다면 공격수 중 한 명은 빠질 공산이 크다. 박주영의 투톱 파트너로 활약했던 이근호와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까지 A매치에서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은 이동국(전북)은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안정환과 젊은 피 이승렬(FC서울), 국내로 복귀한 설기현(포항) 등 세 명이 다투야 할 전망이다.
 ◇미드필더 백업은 누가...조원희도 후보=박지성을 지원하는 왼쪽 미드필더 백업 후보로는 ‘원발 달인’ 김보경(오이타)이 유력하다. 오른쪽 측면은 이청용이 책임지는 가

운데 중앙과 측면을 오갈 수 있는 전천후 플레이어 김재성이 후보다.
 중앙 미드필더 ‘듀오’는 오랫동안 발을 맞춰온 기성용-김정우 조합이 유력한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 김남일과 신희민(포항) 등도 백업 요원이다. 변수는 조원희(수원)의 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있다.
 ◇골키퍼·수비수는 예약...부상 강민수가 변수=주전 수문장인 이운재와 백업 골키퍼 김영광(울산), 정성룡(성남)은 일찌감치 세 자리를 확보했다.
 8명을 뺀을 예정인 수비수도 어느 정도 굳어져 가는 분위기다. 좌우 풀백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맹활약한 이영표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차두리가 낙점을 받은 가운데 국내파인 울산의 ‘쌍두마차’ 김동진과 오병석도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앙수비수는 조용현이 불박이로 나서는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이종수와 곽태휘가 경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영국 로프트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축구대표팀 친선경기에서 박지성이 슈팅을 시도하다 바리에에 막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2 월드컵 유치위, 국내 개최 도시

광주 등 14개 경기장 확정

개최 신청한 무안은 제외

2022 월드컵 유치위원회(위원장 한승주)는 4일 오전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총회를 열어 국내 유치시 월드컵을 개최할 12개 도시의 14개 경기장을 확정했다.
 월드컵 유치위는 조별리그 예선을 치를 개최 도시로 2022년 한·일 월드컵을 치른 경기장을 보유한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제주 등 10개 도시에 천안, 고양을 추가했다. 서울과 인천은 나란히 2개 경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애초 개최 도시를 신청했던 15개 도시 중 평안과 청주, 무안 등 3개 도시는 제외됐다. 유치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내 개최를 신청한 도시들의 경기장 시설과 교통, 숙박 등 모든 여건에 대한 실사를 토대로 평가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월드컵 개막 경기장은 2014년 인천 하계 아시안게임의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할 인

천 아시안드 경기장, 결승과 폐회식 경기장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으로 각각 정해졌다.
 준결승은 부산, 대구에서 치르며 3-4위전과 준준결승, 16강전 및 조별 예선은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제주, 천안, 고양, 인천(문학경기장), 서울(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개최식과 폐회식, 결승 경기는 관중 8만명 이상을 수용해야 하며 준결승은 6만, 조별리그 경기장은 4만명 수용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유치위는 선정 이유로 “인천 아시안드경기장과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주경기장이었던 잠실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고양종합운동장과 천안시종합운동장을 활용함으로써 신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유치위는 오는 5월14일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정부 보증서를 첨부한 유치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월드컵 최종 엔트리

내달말, 5월초 확정

허정무 감독은 이르면 4월 말, 아니면 5월초 남아공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확정해 발표한다.
 대표팀은 오는 5월16일 에콰도르를 불러들여 친선경기를 치르고 월드컵 출전식을 연다.
 대표팀은 5월24일 일본으로 건너가사이타마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일본과 격돌 후 곧장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로 이동해 시차 적응 등을 염두에 둔 전지훈련을 이어간다.
 대표팀은 오스트리아 전훈 기간인 5월30일 또는 31일에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포함한 유럽 강팀을 상대로 평가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6월3일에는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챔피언인 ‘무적함대’ 스페인과 마지막 친선경기를 벌인다. 대표팀은 애초 오스트리아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5월31일 남아공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스페인과 평가전이 성사되면서 결전지 남아공으로는 6월4일 입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